

< 중국출장결과 보고 >

출장명 : 중국 샤먼(하문)지역 당근 생산·수출 실태 조사

1. 출장 목적

- 중국의 당근 생산 및 유통현황 파악
- 중국 당근 최대 주산지 샤먼(하문)지역 방문

2. 출장 목적 세부 내용

중국산 당근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현지점에서 중국 내 당근 최대 주산지인 하문지역의 농장과 수출업체 방문을 통해 최근 중국의 당근 생산 및 대한국 수출 동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함.

3. 출장자 · 출장기간 및 출장지

소속	출장자	직위	담당품목	출장기간	출장지
농업 관측센터	공민지	초청연구원	당근, 양배추	4월1일(월)~ 4월3일(수)(2박 3일)	중국 하문

4. 출장일정 및 주요 방문기관

- 주관기관(구좌농협) 일정과 연계

일 정	방문기관	업무내용
4.1일(월)	인천-> 하문	▪ 출발 및 도착
4.2일(화)	당근 세척공장 방문	▪ 당근 가공 현황 파악
	당근 농장 방문	▪ 당근 재배현황 현장 답사
4.3일(수)	한국 수입업체 (주)부광 대표 면담	▪ 한국 수입업체 동향 및 유통 현황 파악
	하문-> 인천	▪ 출발 및 도착

5. 출장 결과

가. 상안(翔安)구 마상 당근 재배산지 방문

□ 면담자 : 현지 협력업체 직원

- 중국은 산둥성, 복건성(하문), 내몽고, 하북 등 4개 지역에서 집단농장을 구성 당근이 재배되고 있으며, 산둥성은 3월에 파종하여 6월부터 수확이 이루어지며 복건성은 9월~10월에 파종하여 이듬해 2월부터 5월까지 수확됨.
- 산둥성 지역은 1년 2모작 재배로 이루어지나, 하문지역을 비롯하여 내몽고 지역, 하북지역은 1년 1모작이며, 하문지역 당근 재배면적은 3,300ha, 총생산량은 240,000톤으로 산둥성지역 다음으로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임. 총생산량의 60%는 수출, 40%는 중국내 내수용으로 출하됨.
- 중국내 경제 발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특히 하문지역은 경제특구 지역으로 다양한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인구 증가는 물론 소득이 높아 내수시장 소비 규모가 증가하여 당근 수요도 높아지고 있음.

<관수시설; 위에서 뿌리는 방식>



<하문 상안 지역 당근밭 전경>



□ 면답자 : 중국인(조선족) 당근 생산 및 수출업자(이주홍)

- 하문지역은 지리적으로 1년 내내 온화한 기후와 마사토로 형성된 천연적인 당근 재배 적지로 분포되어 있어서 토양 유실이 적고 재배 환경이 적합한 지역임. 따라서 현지 당근재배에 있어서 별다른 시비를 하지 않음.
- 기계화율이 높은 한국에 비하면 하문지역은 농촌 가정에 소를 키워 쟁기질은 하고 그렇지 못한 가정은 사람이 일일이 쟁기질을 하고 거름(소거름)시비에 의해 정부에서 권장하는 화학비료 시비, 농약살포만을 함. 자연 그대로 친환경 농업이 실천되고 있는 셈 즉, 농약과다 살포, 중금속 오염 등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던 사례는 찾아 볼 수가 없음.
- 필지별 면적이 대부분 300평~500평 규모로 계단식처럼 이어진 농경지가 대부분이며, 우물을 이용한 관수시설이 포장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중국 정부가 농가 1명당 1필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음.
- 생산비는 종자, 비료, 농약,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평년기준 200평당 7~8천 원(원화)이 소요됨. 그러나 금년은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급증하여 거래가격이 떨어진데다 최근 인건비가 40% 이상 상승하여, 2013년 3월 현재 10kg 박스기준 가락시장 경매시 1,400원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 하문지역 당근 재배품종은 일본산 종자(슈퍼배타)가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자가격이 1캔당 50만 원 이상으로 크게 높음. 이에 기계파종 또는 산파를 하지 않고 일일이 점파를 하고, 발아가 안 된 곳은 보식을 하며, 김매기 등 관리가 철저하여 특자(우수품)수율이 70%를 웃뽀.
- 당근 수확은 파종 후 140일이 경과 후 수확. 일반적으로 재배기간이 120일 내외이나 품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140일 경과 후 수확하며, 고온의 기상조건 하에서는 전날 관수를 하고 아침 일찍 수확하여 당일 세척장으로 운반 및 세척되어 일련의 공정이 마무리 됨.

<하문 상안 지역 당근 작황>



<수확된 당근; 크기가 아주 큼>



나. 당근 자동화 세척공장

□ 면담자 : 현지 협력업체 직원

- 중국내 세척시설은 산지 유통인이 운영하는 소형 세척시설과 전문적으로 세척과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 유한회사로 구분됨. 산지유통인 소유의 시설은 하문지역에만 400여 업체가 있으며, 대형 세척시설 유한회사만도 40여 곳이 있음.
- 이들 유한회사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어 정보 교류는 물론 유통과, 수출 조절이 원활히 이루어져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으나, 최근 회사별 수출시장 독점을 위한 경쟁 과열로 당근 수출 수익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대형 세척시설인 경우 100평 이상의 시설에 보통 2조의 세척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종사인원은 100여명으로 수출 국가별로 분업화가 이루어져 선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각 나라마다 크기, 모양에 맞는 선별조가 형성되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선별은 2단계로 이루어짐. 먼저, 크기별로 각 나라별 수출 규격에 맞는 선별이 이루어지고, 포장상자에 선별 포장함으로서 기계작업보다 더 정확한 수작업 선별로 효율성을 높이는 형태. 세척공장 종사자들은 젊은 인력이 대부분이며, 작업 능률이 높고 효율적으로 운영됨.

<공장 외부>



<포대에 수확된 당근; 세척전>



<분업화 된 세척 시스템>



<포장작업>



<박스포장 후 저온창고 예냉작업>



<선적을 위한 컨테이너 적재 과정>



□ 면담자 : 한국 수입유통업체 (주)부광 대표 면담

- 중국 당근은 수출용뿐만 아니라 내수용 또한 전량 세척당근으로 유통됨. 당근 유통시설 가운데 우리나라와 차별화되고 앞서가는 부분이 세척시설 뿐만 아니라 저장시설임. 대형 유통시설을 구비한 업체에는 2,000톤이 넘는 저장시설이 보유하고 있고, 4층 건물이 전부 저장시설로 운영되고 있었음.
- 저장 지식 또한 한국보다 크게 앞섬. 보다 오래 신선한 상태로 저장을 유지하기 위해 세척시설 단계에서 저온수로 냉각상태에서 세척이 이루어지고 포장된 당근은 다시 예냉실을 거쳐 저장시설로 운반되어 장기 저장이 이루어짐. 또한 저장시설내에서도 일정(적정) 물량 보관을 통해 골고루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가 이루어짐.
- 일본, 호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전 세계 당근 소비국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하문지역 당근은 전체생산량의 60%가 수출되고 나머지 40%는 내수시장에 유통. 수출 상품별로는 가장 큰 것(3L)은 캐나다에 수출, 포장은 망사에 넣고 비닐로 포장한 다음 냉을 거쳐 수출. 그다음 품질(2L)은 한국을 비롯해 10kg 상자에 포장되어 수출. 한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물량 가운데 8% 가량임.